

기독인의 사회봉사

이 보 민 교수
(소장, 신학박사)

저마다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목청도 높이고 플래카드도 높이 쳐들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보다 오히려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으니 도대체 사회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지 옛날에 사람들이 묵묵히 사회봉사를 한답시고 혼신적으로 공민학교나 야학 등을 운영하고 또 낙도 같은 테에 들어가서 조용히 봉사하는 등의 일을 더 이상 사회봉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선동하거나 또 학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피교육자들을 소위 의식화시켜 투쟁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 넣어 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차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전투적이 되어져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듯한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식의 일들만 사회적 봉사라고 생각하는, 이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펼연적인 풍조가 생겨났다. 그렇게 사회봉사란 일률적인 모습을 띠는 것일까?

진정, 사회봉사란 소위 운동이니 투쟁이니 하면서 땃을 지어서만 할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그런 봉사를 하도록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있는 것인가? 어느 누가 조용하게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묵묵히 돋거나, 부랑청소년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은 진정 사회봉사가 될 수 없는가? 도대체 “봉사”란 이 경우에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 사회를 위한 봉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충격을 주어 특정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자가 보기엔 사회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들에게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쏠리게 하는 온갖 선동적, 투쟁적, 충격적 방법을 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한다. 농민 쪽에서는 이 사회에 농민들이 가장 억울하다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가장 억울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가들 역시도 그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한 데 비하면 오히려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전용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우리 사회에 자신을 억울한 대접을 받는 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소위 오공비리의 핵심이라고 지탄받는 직전 대통령은 그런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이와 같은 형편에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억울한 자들을 향해 전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충격들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온 사회를 투쟁과 선동의 도가니로 만들 뿐, 차근차근히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문제들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거나, 그 연구결과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전혀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은 어찌하여 그런 식의 일을 사회봉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한결같이 “사회”가 자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마다 사회로부터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것처럼 날뛰니 도대체 그때의 그 사회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오늘날 “사회봉사”라는 구호는 한편 우리에게 호소력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 우리를 철저히 혼동시키는 모호한

것이 되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 기독인들은 무엇을 사회봉사로 바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바른 봉사의 실천을 행할 것인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연하게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서부터 어떻게 사회봉사라는 개념이 잘못 파생되었는지를 먼저 살필 것이고 그 후에 우리 기독인의 봉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논의해 볼 것이다.

1. 사회란 무엇인가?

본래 사람들이 “사회”를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인간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즉 개인으로서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 무엇이라고 여겼었다. 그것은 물론,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필요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를 만든다는 공리주의 사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사회가 개인들의 산물(產物)로 여겨지는 한(限), 그 사회를 위한 봉사, 즉 사회봉사라는 개념은 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란 개인들의 단순한 합(合)”이라고 생각하던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부터 시작되었다. 개인들로서의 인간들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이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스스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 나타난다는 그 사회에 의해 인간들이 인간답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럴 때의 그 사회란 대단한 인격적인 실체일 수밖에 없다. 인격적 존재인 인간들을 인간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사회를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에 개인으로서의 인간들이 사회로부터

터 책임을 부여받아 그 사회를 향해 책임을 행한다는 소위 “책임사회”的 개념, 즉 사회봉사의 개념이 성립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인격적 실체로서의 사회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냐하는 점이다. 사실 인격적 실체이어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사회”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 속에 사는 각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회가 부여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위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각자들이 “사회봉사”는 상호 배치되어 오히려 그 봉사라는 것 때문에 사회는 혼란과 투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된 대로 오늘날 사람들은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그 “사회”라는 것이 자기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층에게 전체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억울하게 불이익 당하고 있는 자로 여기면서 사회 전체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가 속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계층이 불이익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자기들이 싫어하는 또 다른 특정 계층을 공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동기(動機)에 의한 것이다.

“사회봉사”라는 것이 이와 같이 자기 이익 추구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식의 “사회봉사”는 진정한 사회를 위한 봉사가 아니었고 각자의 자신의 사회적 의식에 따른 자기 표현들일 뿐이라고 하겠다. 그런 자기 표현들을 스스로 사회를 향한 봉사로 착각하거나 또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기독인들의 사회봉사가 그런 종류의 사회봉사가 되어도 무방한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사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면서 사회봉사를 행해야 하는가?

우선 사회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독립적인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장이라는 점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란 아무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들의 합(合)일 뿐이라는 공리주의적인 생각도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어쨌거나 인간들은 각자 따로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사회 속에서는 어느 정도 바꾸게 되는 면이 있다. 즉 개인이 사회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반드시 사회가 어떤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공리주의자들 가운데는 사회가 단순히 개인들의 합(合)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마샬(Marshall)은 인간이 자기 이익을 사회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지만 그 자신이 그 사회에 의해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한 견해를 바꾸게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오히려 사회에 의해 영향을 입는다는 것이다. 파슨즈(Parsons)는 개인으로서의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사회화(Socialization)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니게 되고 또한 규범을 지키게 되며 타(他)와 결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입힌다는 것이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가 어떤 독립적인 실재인 것으로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는 그 사회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사회가 개인적으로서의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 사회가 인격적인 실체도 아니며 파슨즈가 말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독립적인 존재도 아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로서의 실재(factual reality)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실로서의 실재의 사회는 결코 개인들의 단순한 합(合)만은 아니다. 인간들은 개인으로서 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때 개인으로서의 자신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요소를 지니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사회공동체에서 살면서 스스로에게 변화를 초래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사회공동체 속에서 양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롬 2:15) 그런 대로 상호공동적인 생활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영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양심의 작용을 일으키면서 함께 산다는 사실적 실재가 될 뿐이고 그럴 때에 그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합(合)과는 다른, 즉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독인에 비추어지는 사회란, 타락한 인간들은 이기적이어서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들에게 “양심”的 작용을 일으키면서 서로 약간의 배려를 갖도록 하심으로 인해 인간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인간이 함께 산다”는 “사실적인 실재”(factual reality) 그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위 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에 도움을 주는 모든 일일 것이다.

2. 진정한 “사회봉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배필을 허락하여 가족을 이루셨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만으로도 타락 이전에는 공동체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지만 타락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물론 타락 후에도 가족을 통해 인간은 혈연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또는 권위와 순종의 관계 등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적용되지 않아서 인간의 함께 삶이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용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혈연관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삶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들에게 양심 작용을 일으켜 “동료의식”과 같은 종류의 연대감(連帶感)을 갖도록 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회공동체의식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그 사회공동체에 대한 원만한 연대의식을 개인들로서의 인간들이 가질 수 없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시간을 뛰어 넘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도 유대감을 느끼는 일종의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하여

시간을 뛰어 넘는 공동체를 의식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곧 혼히 말하는 민족공동체인데 그것의 실체란 인간들이 동시대에만 사회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사는데 그와 같은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적 실재일 뿐이며, 이것 역시 인간들의 현재의 함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는 못하다.

현재의 인간들의 함께 삶에 방해되는 것을 강제로 막고 또한 실제로 강제력을 발휘하여 그 함께 삶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강제력을 지니면서 또한 그것을 체제(system)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곧 국가권력이다. 현재의 인간들의 함께 삶이 국가 권력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될 때 바로 그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를 국가라고 부른다. 분명한 것은 국가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이 현재에 함께 산다는 의미의 사회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인들이 이해하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함께 삶의 사회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요약해 보면, 우선 인간들로부터 예금 혈연과 사랑의 관계를 미리 가족일원들끼리 가져보게 하시고 거기서 얻어진 인간관계의 능력에 따라 함께 사는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거기에는 양심의 작용에 힘입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함께 삶의 사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함께 삶의 사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역사의식을 통해 함께 사는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도록 하시고 거기다가 국가라는 권력을 세우셔서 제도적으로 함께 삶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기독인들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다각적으로 배포셔서 인간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볼 때 우리의 사회에 대한 봉사는 궁극적으로 그 함께 삶이 원활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작 그 함께 삶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이것은 결코 특정인들이 자기 스스로 살기 좋은 방법을 택하여 거기에 준하여 모두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각자가 그와 같은 식으로 소위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거기에는 끝없는 혼란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함께 삶”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냉철히 생각하면서 사회봉사를 행해야 한다.

기독인들은 가정에서부터 바른 인간관계를 모범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웃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기독인의 사회봉사의 핵심일 것이다. 우리 기독인의 민족의식 역시도 우리 동포들이 함께 사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지니고 발휘해야 한다.

국가체제도 진정 인간의 함께 삶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 기독인은 그것을 지지해야 할 것이며 그 반대라면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독인이 사회봉사로서 행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단순하게 하나로 말할 수는 결코 없다. 사실, 인간이 함께 산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차 이들의 공동체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일인가?

인간이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일만이 절대적이라고 내세울 수 없을 만큼 그 자체가 모호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특히 기독인들이 어떤 특정한 일만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절대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기독인의 사회봉사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사회의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떠한 “소박하고”, “보잘것 없는” 일까지도 사회봉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들이 사회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사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바른 봉사적 태도를 갖는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앞서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을 위해 봉사하려고 할 수 있을까? 함께 삶의 나의 사회가 온갖 불이익의 일을 현재 나를 향해 초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게 되도록 노력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나의 사회가 내게 어떠한 일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회를 위하는 일을 나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한 약간 가능해진다. 그런 식으로만 사회를 위한 봉사, 즉 함께 삶에 대한 기여는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기독인들이 올바른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교인으로서의 교회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개인적 신앙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그리고서는 가정에서부터 바른 인간관계를 배우고 또한 직접 함께 사는 이웃들과 잘 살 수 있도록 현신적 노력을 하고 바른 민족의식을 통해 봉사하고, 또 정치체제에 대해서 바른 판단과 아울러 지지 또는 비판을 함께 있어서도 자기의 유익을 배제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게 됨을 위해 현신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현신적 봉사는 나의 주위의 사회가 내게 어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 수행의 차원에서 행하는 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봉사수행의 내용 역시도 어떠한 통일된 일률적인 것일 수가 없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바른 사회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회봉사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사회를 좀먹는 것이라는 생각은 사회를 오히려 혼란시키는 것일 뿐이다. 각자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함께 삶의 사회에 도움을 주려면 줄 수가 있다. 문제는 각자가 그 일들을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행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과격하게 선동하고 투쟁하는 일만이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격한 행동까지도 때로 사회봉사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행하느냐가 사회봉사의 핵심적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알아서 자기 희생적으로, 그리

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일이다. 그럴 때에 “사회봉사”라는 이름 아래서 사회를 망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어서 사라질 것이다.